

**가계지출 비교평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 소비자 교육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Compare & Evaluation  
 Program for Household Consumption”\***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이 승 신

Dept. of Consumer & Housing, Konkuk Univ.  
 Professor : Seung Si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내용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mputer software titled “Compare & Evaluation Program for Household Consumption”. This software is developed in Microsoft Visual Basic 6.0. For the data of this program,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1998) produc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Korea is used.

This program compares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for each household with those for standard household according to income level and family life cycle. This program gives information and suggestion for household consumers to manage rational household consumption.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validity and usefulness of the software program by interviewing 20 households used this program.

**I. 서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소위 정보가 세

상을 지배하는 사회, 즉 정보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과 전세계를 사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수 해외파견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러한 공간 속에 하나로 묶고 있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훨씬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한층 발전된 소비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소비환경 속에서 정보가 소비자의 힘이 되고 지식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컴퓨터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반면에 소비자가 컴퓨터 사용환경에 익숙하지 못하면 합리적 소비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정보불평등 계층에 속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불합리한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보화 시대의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가 새로운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일선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컴퓨터 활용효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학 분야에서 개발된 많은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학습현장에 보급되고 그 효과가 여러 측면에서 연구, 실험되고 있다. 사실상 컴퓨터가 수업에 활용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수업의 개별화를 통한 개개인에 대한 고려, 수업진단, 능력별 지도, 보충학습 및 심화학습의 강화, 시뮬레이션, 즉각적인 피드백제공 등-에 대한 언급이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사회에서의 교육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학습용 소프트웨어의 체계적 개발 및 효과검증방안, 담당기관, 보급방법,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사/교수 연수 등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적 차원뿐만 아니라 소비자학과 같은 실용학문이 소비자와 가계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하는 규범적인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자정보 환경인 컴퓨터를 이용한 효과적인 측정도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소비자학분야의 교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계부 프로그램인 'Home Life' (박명희, 이승

신, 배미경 개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학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도구의 일환으로서, 제한된 자원 내에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계경제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하는 소비자교육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가계지출 비교평가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하고자 한다.

한편, 생산과 소비가 확연히 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가계의 소비행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생활과 소비는 매우 밀접한 관련하에 있고 소비를 통한 복지의 달성은 가계행동의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므로 각 가계가 제한된 소득을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연구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계지출 비교평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타당성 제시와 이론적 바탕 아래, 우리 나라 통계청에서 조사된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소득과 가정생활주기에 대한 준거틀을 작성하여 실제적인 가계소비지출평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활용성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시도되는 가계소비지출 평가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통해, 가족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계와 환경이 유사한 가계의 소비생활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가계소비지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소비지출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가계재무계획을 위한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서 가계관리자에게는 효과적으로 가계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소비자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유용한 수업도구로써 활용되며 소비자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그 실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계소비지출의 영향요인

각 가계가 행하는 다양한 소비지출의 형태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적절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두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소득이나 저축, 재산, 가격과 같은 경제적 변수와 가구주나 가족생활주기,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통계적인 변수이다(생활경제연구모임, 1993).

먼저 경제적인 변수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계의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변수가 소득이다.

Keynes(1936)가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으로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거시경제학에서 출발한 소비함수이론은 가계의 소비행동을 미시적 관점에서 연구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Keynes는 단기적으로 소비수준은 주로 현재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절대소득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지출은 현재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일 현재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도 증가한다.

이밖에 소비지출과 소득과의 함수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고전적인 이론은 앵겔법칙이며 본래 앵겔법칙은 소득과 식료품과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가계의 전 지출비목별로 지출패턴과 소득과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소득이며 앵겔법칙에 의해서 소비지출·소득함수는 가장 잘 설명된다(박명희 외, 1998).

이상과 같은 이론들은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을 강조한 결과들이며 따라서 소득의 차이는 소비지출형태의 차이를 야기시키므로 가계소비지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전통적인 신고전파 이론에서는 소비지출은

소득과 선호도의 함수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가계소득이 증가되었을 때 특정한 소비지출 항목의 지출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은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선호도는 필요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가계의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출항목간의 필요도 정도는 소비패턴의 골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필요도는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구원수나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그 가계가 필요로 하는 비목들의 양은 달라질 것이며 반면 가구주의 나이라든가 교육정도는 비목들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할 수도 있다(양세정, 1991).

이와 같이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과 함께 물가 및 가계의 선호도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꼽을 수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가정생활주기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의 소비는 가족의 형성에서 성장 발전하여 부부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성립이후 자녀의 출산과 성장, 독립 등의 확대와 축소를 거치는 동안 가계는 생활주기단계에 따라 가족규모 및 그 구성이 변화하여 이에 따라 소비욕구도 변화하기 때문이다(생활경제연구모임, 1993).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가계에 비해 자녀가 있는 가계는 자녀양육을 위한 소비재화와 용역을 필요로 할 것이며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교육과 관련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필요가 달라질 것이다(이승신 외, 1996).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소득과 함께 가계의 소비지출형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주기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생활주기는 가족의 발전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표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가정생활주기중 3단계구분은 가정생활주기를 너무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확대기의 비중이 크고 소단계구분인 8단계는 가정생활주기를 너무 세분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가정생활주기중 5단계 구분

〈표 1〉 가정생활주기의 구분

대단계	소단계	중단계
가정형성기	가정확립기	신혼기
확대기	자녀출산 및 미취학아동기	학령전기(양육기)
	자녀의 초등교육기	학령기 (학교교육기)
	자녀의 중등교육기	
자녀의 고등교육기		
축소기	자녀의 직업적응기	자녀독립기
	경제적 회복기	노년기
	은퇴기	

출처:이기춘(1991),가정경제학, 교문사: 이기영 외(1998), 생활실계론, 교문사.

인 중단계방법을 선택하여 이에 따른 가계의 소비 지출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각 가계마다 처해있는 가정생활주기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과 이에 따른 욕구 및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지출형태나 지출규모도 상이하게 된다. 이를 소비수요측면에서 볼 때, 신혼기에서는 가정생활주기중 소비수요가 가장 낮고 학령전기에는 신혼기보다는 높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소비수요는 낮다. 그러나 자녀의 학교교육기인 학령기에서는 가정생활주기중 소비수요가 가장 높아 이 시기에는 가계수지가 적자가 되기도 하는 단계이다. 자녀독립기에는 점차 소비수요가 감소하여 노년기에는 신혼기보다는 자녀학령기나 자녀독립기보다 낮은 소비 수요수준을 나타내게 된다(〈표 2〉 참조).

이상과 같이 소득별, 가정생활주기별로 지출규모나 지출형태는 크게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그러므로 가계소비지출의 평가와 진단은 소득별, 가정생활주기별로 지출규모와 지출형태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질 수 있다.

## 2. 소비자교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

현재 소비자학 분야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이며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비롯하여

〈표 2〉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수요와 가계수지상태

가정생활주기	소비수요	가계수지
신혼기	가장 작다	흑자
학령전기(양육기)	신혼기보다 증가하나 작다	흑자
학령기(학교교육기)	매우 크다	적자
자녀독립기	점차 감소한다	흑자
노년기	신혼기보다는 크나 작다	흑자

· 출처:이기춘(1991), 가정경제학, 교문사.

일리노이 주립대학이나 Texas Austin과 같은 몇몇 대학에서는 Computer Application Center를 두어 소비자학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교과 과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위해서도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중 최근에 활발히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연구자가 직접 사용해본 프로그램으로는 가격-품질평가프로그램(Price-Quality Program), 정보탐색 프로그램(Information Search Program), 가족시간관리 프로그램(Family Time Use Program), 생활주기 저축 프로그램(Life Cycle Savings Program), 가계 소비 패턴 프로그램(Family Spending Program) 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는 재무관리 프로그램(Financial Statement Program)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가계소비상태표와 가계자산상태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계수지 상태의 파악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게 해 준다는데 프로그램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가계의 소득 및 지출, 그리고 자산상태를 1년을 단위로 하고 있으므로 월별 가계수지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즉, 이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가계의 소비욕구와 필요가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없다. 또한 가계의 소비지출을 비슷한 가계와 비교할 수 있으나 이를 평가하고 진단해 주는 과정이 없으므로 가계관리적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월별 가계수지상태표를 작성하고 이를 가정생활주기별로 세분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지출의 평가와

진단을 추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한다.

한편, 국내 소비자학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현황을 보면, 국내 컴퓨터회사에서 개발한 가계부(다람쥐, Maa, DASOM, Park, 메타클릭 95 for money, 아내사랑Ⅱ, 하영이네 가계부, 가정경제, 홈마스타, 우리집가계부)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들은 소비자학과 관련이 없이 국내 컴퓨터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들이다. 박명희·이승신·배미경(1998)이 개발한 가계부 프로그램인 'Home Life'가 소비자학자들이 개발한 유일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가계부는 기존의 책자가계부에 비해 여러 기능을 첨가하여 가계부작성에 따른 시간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가계재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은 책자 가계부와 같이 매일 수시로 컴퓨터를 통해 장기간 가계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시간이 부족한 경우 책자 가계부보다 이용에 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의 한정된 자원내 소비지출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계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준거가계와 비교하고 평가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재무관리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가계의 재무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연구절차 및 방법을 수행하였다.

· 연구방법 및 절차 1: 표준가계를 선정하기 위하여 가정생활주기별 가계소비지출액과 비중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도시가계연보(1998)<sup>1)</sup>의 Data를 사용하여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독신가구와 가계수지상태를 파악하기 곤란한 가구를 제외하였

다. 가계소비지출비목은 도시가계연보의 1998년도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인 11개 비목으로 구분한다.

가정생활주기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희기, 학령전기, 학령기, 자녀독립기,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가정생활주기에 속하는 가계의 소득분포를 4분위로 나누어서 소득수준을 각 가정생활주기별로 하, 중하, 중상, 상의 4단계로 구분한다. 이때, 소득은 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기타가구원 소득, 사업,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의 총합계로 산출한다. 이를 통해 같은 가정생활주기에 있는 가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각 소비지출비목의 지출액과 비중을 평가하는 준거의 틀을 마련한다. 이상과 같은 소득과 가정생활주기의 구분에 따라 Data에 속한 가계는 총 20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이들 가계의 평균치가 소득과 소비지출비중도의 평가시 표준 Sample이 된다.

· 연구방법 및 절차 2: 통계결과를 통합시킨 컴퓨터 가계지출 비교평가 프로그램을 구성 제작한다. 가계지출평가 프로그램은 Window98 운영체제에서 Microsoft Visual Basic 6.0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각 소득과 소비지출 비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MS Chart Control을 이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Window 95/98 OS환경에 CD-ROM이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 환경에서만 설치 가능하며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7인치 이상의 모니터에서 해상도 800×600이상의 환경이 필요하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가계연보의 data는 1998년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이므로 현재 2000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사회변동이나 물가상승 등과 같은 요인에 따른 시간적 오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한계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은 1년을 주기로 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폭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표준가계의 가계소득과 지출액을 수정하여 오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해당가계의 소비지출액 및 비중과 표준가계의 소비지출액 및 비중을 제시하여 해당가계의 현재 소비지출상태를 파악하게 한다. 아울러 흑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가계의 소비지출비목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평가하고 진단하는 기능을 첨가한다.

· 연구방법 및 절차 3: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당도 검증은 위하여 주부 5인과 소비자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5인에게 프로그램의 설치 및 프로그램의 이용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평가하게 하였다.

이상의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나타난 주요 개선점으로는 프로그램의 각 단계마다 저장기능의 첨가와 해당가계의 소비지출비목의 그래프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출력기능의 첨가 등과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상에서 수정한 후 최종 가계소비지출 평가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 연구방법 및 절차 4: 이상과 같이 완성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경우, 내용자체의 타당성과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어떠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유형을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을 구분한 4가지 유형과 가족생활주기의 5단계에 근거하여 모두 20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형태에 해당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20가계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한 후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근거로 하여 직접 개별 인터뷰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상이고 가족생활주기가 신혼기에 해당하는 가계, 소득수준이 중상이면서 학령전기에 해당하는 가계 등이 대표성을 가지는 하나의 조사대상가계가 될 수 있으며 이상과 같은 20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내용

##### 1. 통계처리 결과

###### 1) 가정생활주기별 소비 결과

본 연구에서 구분한 가정생활주기별 소비지출 결과는 다음<표 3>과 같다. 그 결과 각 가계는 가정생활주기별로 소비욕구와 필요가 상이하게 나타났고 각 소비비목에 있어서 그 비중도 다르게 나타났다.

###### 2) 가정생활주기별 소비 비목의 중요도 구분

<표 3>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생활주기별 각 소비비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

<표 3> 가정생활주기별 가계소비지출액과 비중

단위 : 원(%)

소비비목 \ 가정생활주기	신혼기	학령전기	학령기	자녀독립기	은퇴기
식료품비	330,400(24.10)	303,600(25.71)	365,700(23.02)	633,300(28.95)	329,400(24.08)
주거비	46,400 (3.38)	37,100 (3.14)	53,300 (3.36)	30,600 (1.40)	46,100 (3.37)
광열수도비	106,100 (7.74)	97,500 (8.25)	115,600 (7.28)	157,400 (7.19)	106,000 (7.75)
가구집기비	47,100 (3.44)	62,100 (5.26)	42,800 (2.70)	80,800 (3.70)	46,800 (3.42)
피복신발비	77,000 (5.62)	61,400 (5.20)	89,800 (5.66)	88,900 (4.06)	76,500 (5.60)
보건의료비	55,000 (4.01)	51,900 (4.40)	57,600 (3.63)	73,500 (3.36)	55,000 (4.02)
교육비	180,800(13.19)	97,100 (8.23)	279,300(17.59)	141,500 (6.47)	170,000(13.09)
교양오락비	54,700 (3.99)	57,500 (4.87)	58,100 (3.66)	74,400 (3.40)	54,200 (3.96)
교통통신비	183,000(13.35)	163,600(13.86)	203,400(12.81)	388,900(17.78)	181,800(13.29)
외식비	113,000 (8.24)	96,500 (8.18)	124,900 (7.86)	317,200(14.50)	112,300 (8.21)
기타소비지출	290,200(21.17)	249,100(21.10)	322,300(20.30)	518,200(23.69)	292,800(21.40)
총소비지출	1,370,600(100.0)	1,180,700(100.0)	1,588,000(100.0)	2,187,500(100.0)	1,367,700(100.0)

〈표 4〉 가정생활주기별 소비비목의 중요도 구분

가정생활주기 비중도	신혼기	학령전기	학령기	자녀독립기	은퇴기
중요재	식료품비	식료품비	식료품비	식료품비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기타소비지출	기타소비지출	기타소비지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외식비	교육비
보통재	외식비	교육비	외식비	광열수도비	외식비
	광열수도비	외식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광열수도비
	피복 및 신발	가구집기	피복 및 신발	피복 및 신발	피복 및 신발
비중요재	보건의료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가구집기	보건의료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가구집기	보건의료	주거비	보건의료	가구집기
	주거비	주거비	가구집기	주거비	주거비

로 소비비목을 크게 중요재, 보통재, 비중요재로 구분한 결과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11개 비목중 전체 소비지출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4개 비목을 중요재로 선정하고 그 다음의 비중을 나타낸 3개 비목을 보통재로 분류하며 나머지 비중을 나타내는 4개 비목을 비중요재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계의 소비비목을 가정생활주기별로 구분한 이유는 프로그램중 가계소비지출의 진단 및 제언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준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3) 가정생활주기별 소득수준의 구분

가정생활주기별 소득수준을 상, 중상, 중하, 하의 4개로 구분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액수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소비욕구와 필요가 비슷

한 같은 가정생활주기의 단계에 놓인 가계라 하더라도 그들이 소유한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지출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지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생활주기별로 소득수준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5〉는 각 가정생활주기별 소득의 분포를 통해 소득수준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25%이하수준을 하, 그 다음 50%수준이 중하, 75%수준이 중상, 소득수준이 100%까지를 상으로 구분하였다.

4) 가정생활주기와 소득수준별 가계수지상태

가정생활주기와 소득수준별로 가계수지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정생활주기와 소득수준별로 가계수지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흑자율을 산출하였다. 흑자율은  $\{(\text{흑자액}/\text{가처분소득}) \times 100\}$ 의 공식을 통해 산출되는데, 여기서 가처분소득=(소

〈표 5〉 가정생활주기별 소득수준의 구분

소득구분	신혼기	학령전기	학령기	자녀독립기	은퇴기
상	283만원이상	247만원이상	315만원이상	564만원이상	281만원이상
중상	195-283만원미만	181-247만원미만	220-315만원미만	283-564만원미만	193-281만원미만
중하	134-195만원미만	132-181만원미만	150-220만원미만	185-283만원미만	133-193만원미만
하	134만원미만	132만원미만	150만원미만	185만원미만	133만원미만

〈표 6〉 가정생활주기와 소득수준별 가계수지상태

(단위: 원)

가정생활주기	소득구분	상	중상	중하	하
신 혼 기	소득평균	4,166,340	2,343,087	1,641,622	960,599
	비소비지출	510,658	257,335	155,125	75,612
	가처분소득	3,655,682	2,085,752	1,486,497	884,987
	소비지출	2,257,927	1,560,457	1,205,842	709,247
	흑자액	139,755	525,295	280,655	177,040
	흑자율(%)	38.2	25.2	18.9	20.0
학 령 전 기	소득평균	3,605,801	2,103,010	1,564,190	976,948
	비소비지출	384,578	214,029	140,826	81,662
	가처분소득	3,220,923	1,888,981	1,423,364	895,286
	소비지출	1,825,258	1,302,477	1,102,201	879,101
	흑자액	1,395,665	586,504	321,163	16,185
	흑자율(%)	43.3	31.0	22.6	18.1
학 령 기	소득평균	4,555,318	2,624,011	1,822,397	1,048,093
	비소비지출	574,458	271,114	167,592	79,560
	가처분소득	3,980,860	2,352,897	1,654,805	968,533
	소비지출	2,545,052	1,791,195	1,448,957	1,057,682
	흑자액	1,435,808	561,702	205,848	-89,149
	흑자율(%)	36.1	23.8	12.4	-9.2
자 녀 독 립 기	소득평균	8,066,992	4,088,985	2,396,297	1,233,059
	비소비지출	1,139,760	248,566	172,603	116,293
	가처분소득	6,927,232	3,840,419	2,223,694	1,116,766
	소비지출	4,555,661	2,454,361	1,507,362	1,352,992
	흑자액	2,371,571	1,386,058	716,602	-236,226
	흑자율(%)	34.2	36.1	32.2	-21.2
은 퇴 기	소득평균	4,168,620	2,332,973	1,630,387	945,861
	비소비지출	510,965	252,008	153,796	75,723
	가처분소득	3,659,655	2,080,965	1,476,591	870,138
	소비지출	2,264,469	1,555,362	1,205,877	893,517
	흑자액	1,395,186	525,603	270,714	-23,379
	흑자율(%)	38.1	25.2	18.3	-2.7

득-비소비지출)이고 흑자액=(소득-비소비지출-소비지출)이다. 이상의 계산공식을 통해 20개의 표준가계의 흑자율은 〈표 6〉과 같으며 이러한 흑자율이 가계의 순수한 저축액이나 여유자금이 된다. 이상의 기준을 통해 각 가계가 소득을 소비지출에 얼마나 적절히 배분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가정생활주기별, 소득수준별 표준가계의 흑자율에 근거하여 이 흑자율보다 해당가계의 흑자율이

5%Point 높거나 낮을 경우, 소비비목의 예산분배를 조정할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다.

## 2.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의 실제

본 장에서는 앞서 서술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개발한 가계지출 비교평가 프로그램의 실행방법을 그 순서에 따라 설명해 보고자한다.



### 1) 프로그램 시작화면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림 1>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화면 맨 아래 오른쪽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료' 버튼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다.

### 2) 개인정보 입력

<그림 2> 화면은 프로그램 실행자의 가정생활주기를 파악하고자 만들어진 화면이다. 먼저 프로그램 실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배우자의 이름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은 부부가계를 기본으로 하여 제작되었으므로 실행자와 배우자의 이름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그 다음 실행자의 가계가 해당되는 가정생활주기를 클릭한다.

이상을 모두 기입한 후 오른쪽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화면 밑에 '다음은 당신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라는 문장이 제시되며 다음 화면이 실행된다. 과거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년월의 소비지출평가 및 정보를 다시 보고 싶다면, 과거의 년월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실행자의 과거에 입력했던 소비지출에 대한 저장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 3) 소득과 소비지출의 입력

세 번째로 나타나는 화면은 실행자 가계의 월별 가계소득과 소비지출내역을 기입하는 단계로서 아래 <그림 3>과 같다.

원단위로 소득과 지출을 모두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수정할 금액이 있으면 해당항목을 다시 수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소득내역으로는 세부적으로 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실행자가 월별 소득이 존재하는 각 세부항목을 원단위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맨 아래 총소득은 기입한 각 소득의 총합으로서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오른쪽의 지출내역은 총 11개의 소비비목에 걸쳐 실행자가 월별 지출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소비지출은 각 소비지출비목의 합으로서 실행자가 각 비목을 기입하면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이때, 각 소비지출항목의 세부내용을 알고 싶으면 해당항목에 마우스를 대고 있으면 세부내용이 화면에 나타난다.

한편, 소비지출비목아래 제시된 비소비지출은 소비지출비목과는 상관없이 평가가계의 흑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항목으로서 비소비지출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

### 4) 가계소비지출의 평가

본 화면은 실행자가 입력한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다음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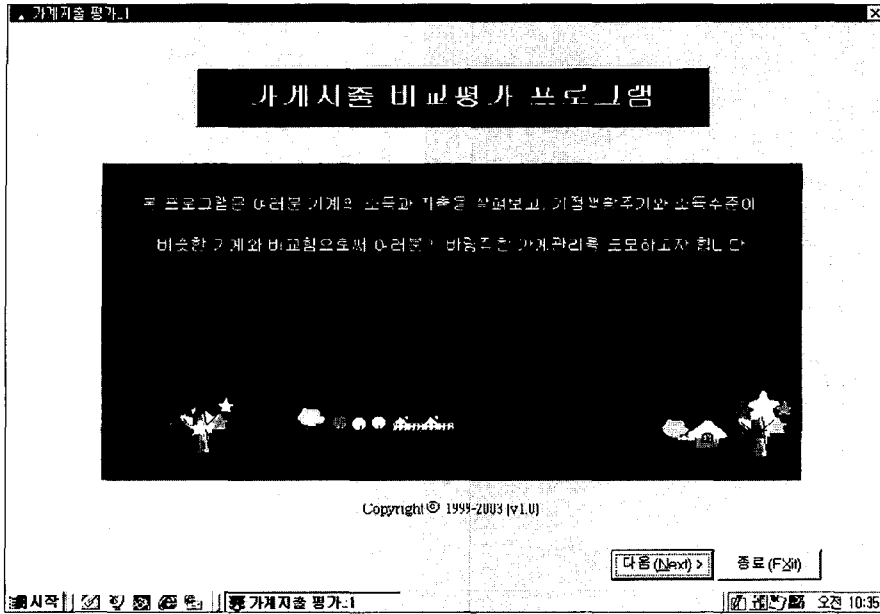
왼쪽박스에는 앞 화면에서 기입한 실행자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비목이 다시 한번 제시되어 있고 각 세부항목의 비중(%)도 제시되어 있다. 이때 비중도는 총소득 혹은 총소비지출에 대한 세부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소비지출의 경우, 각 항목별 비중도를 비교하여 실행자 가계가 표준가계에 비하여 5%point 이상 지출이 많은 항목은 밑줄이 그어진 손모양으로 표시되고 실행자 가계가 표준가계에 비하여 5%point 이상 지출이 적은 항목은 손모양으로 표시된다.

### 5) 소득 및 소비지출평가에 대한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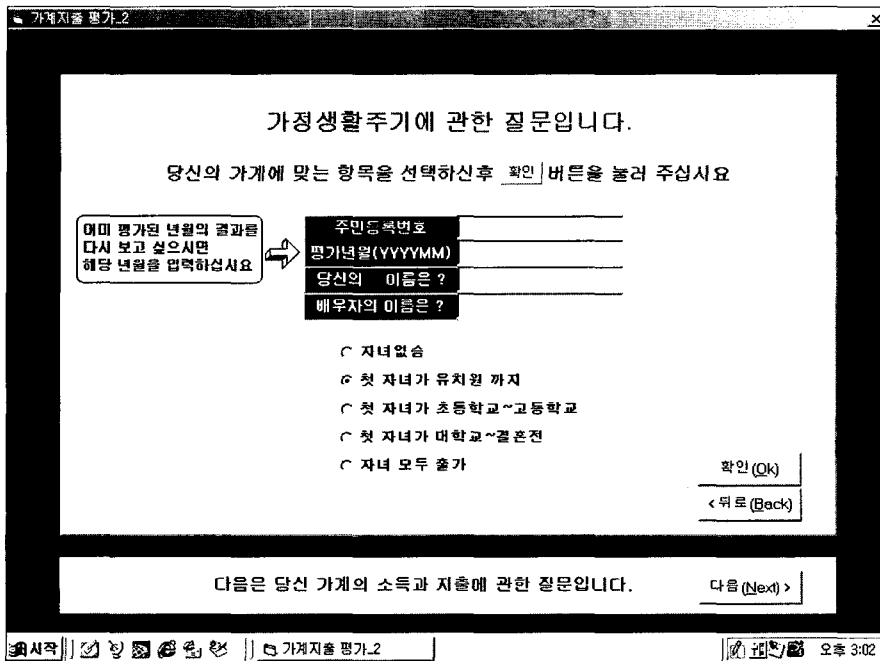
<그림 5>는 평가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비중을 비중이 큰 순서대로 그래프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이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을 시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은 평가가계 소비지출의 각 항목별 비중과 표준가계의 비중을 상호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평가가계의 소비지출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 6)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진단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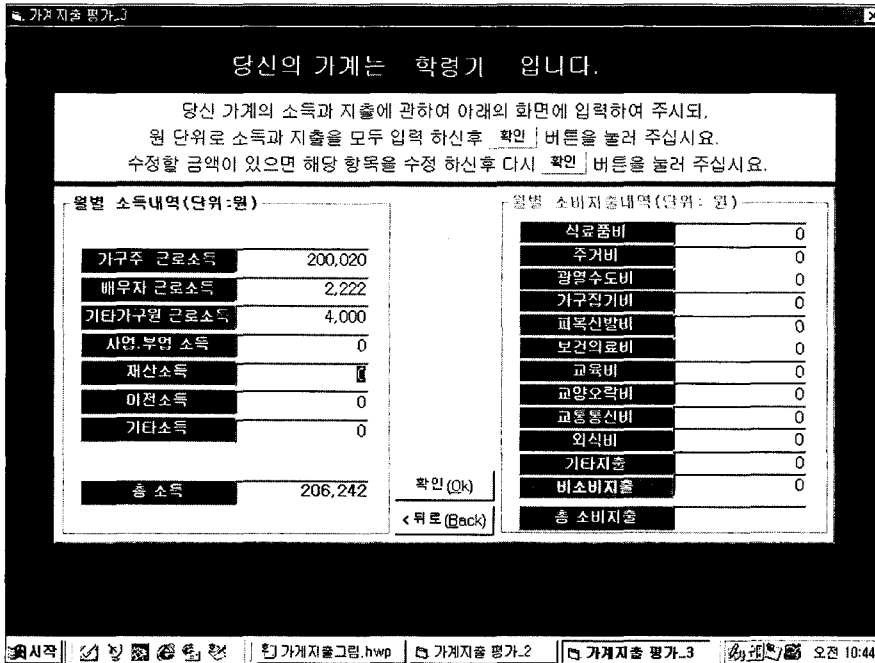
이상으로 실행된 가계소비지출의 비교평가를 통해 다음 화면에서는 각 실행자 가계의 합리적인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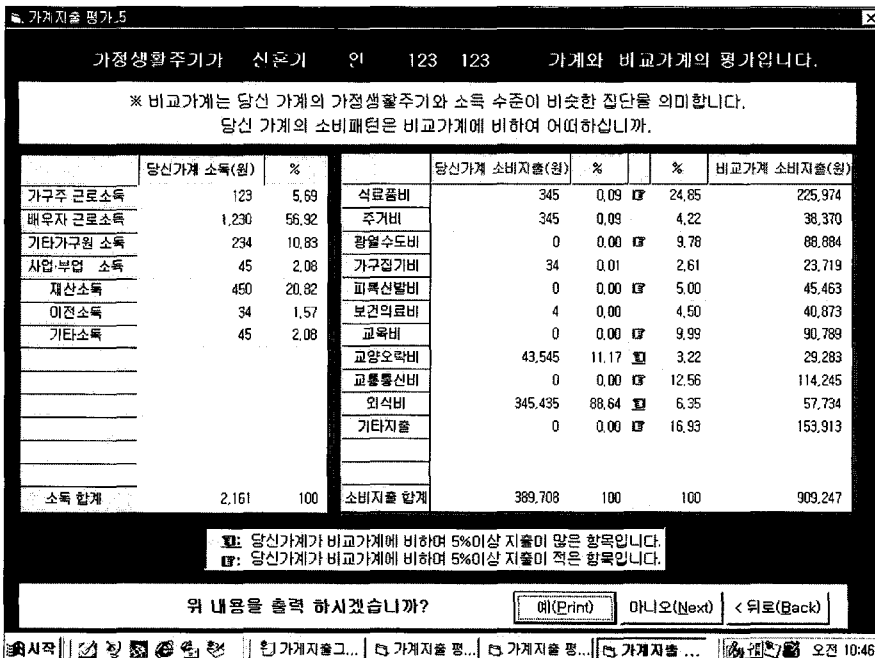
<그림 1> 화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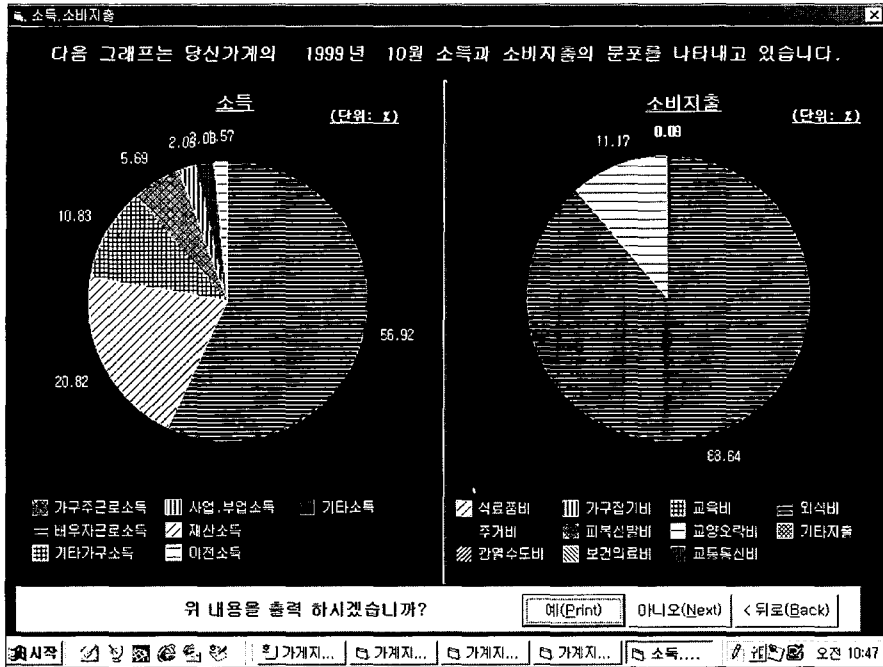
<그림 2> 화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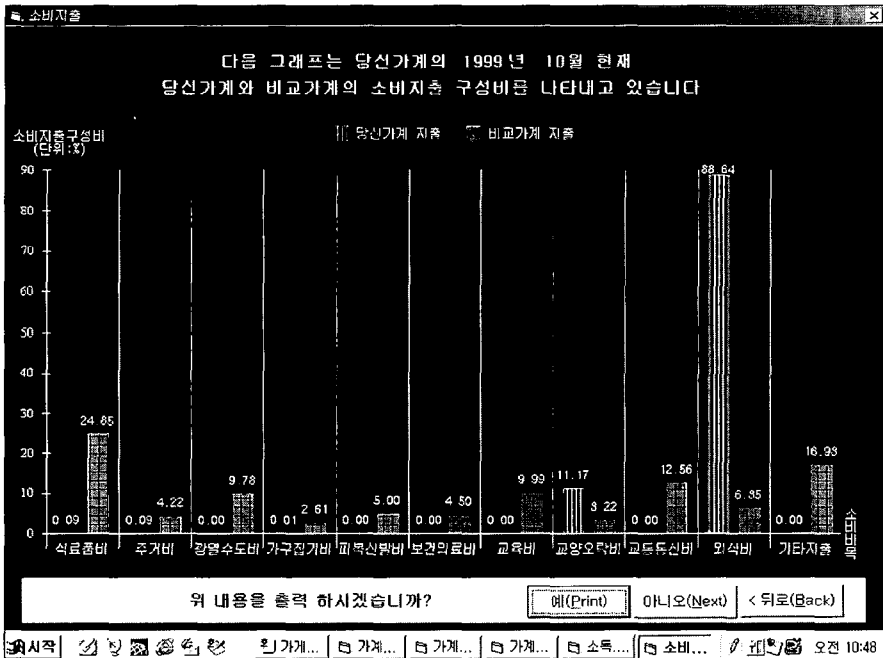
<그림 3> 화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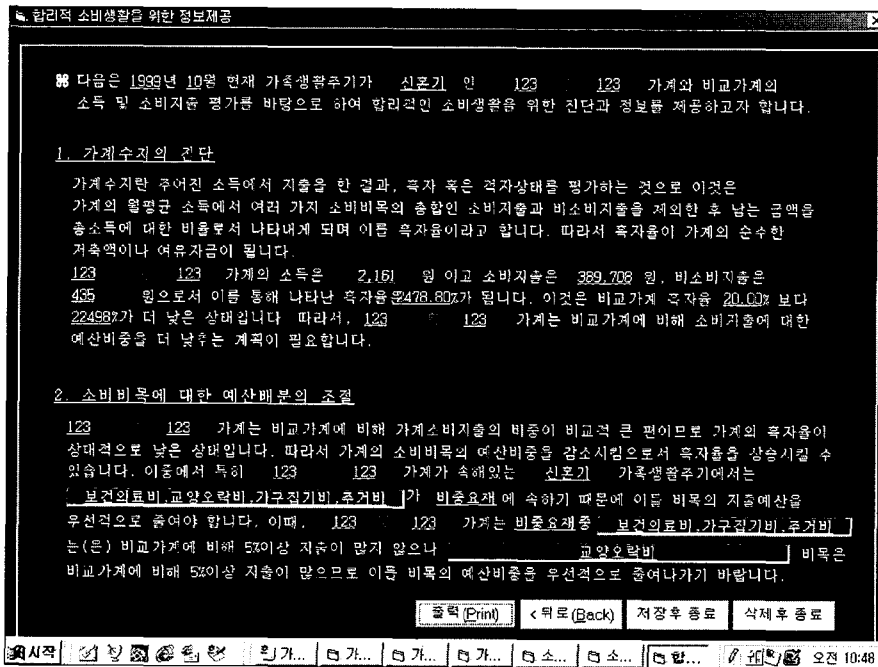
<그림 4> 화면 4



<그림 5> 화면 5



<그림 6> 화면 6



〈그림 7〉 화면 7

비지출을 위한 진단 및 제언을 제시하게 되며 이는 아래 〈그림 7〉과 같다.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진단 및 제언은 크게 2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가계수지상태의 평가이다. 가계수지상태는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중 〈표 5〉에 제시한 흑자율을 통해 평가되는데 〈그림 7〉에서는 가계수지와 흑자율에 대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평가가계의 흑자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평가가계의 흑자율이 표준가계에 비해  $\pm 5\%$ point 이내에 있으면 각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진단 및 제언은 필요치 않는 가계로서 적절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계로 평가한다. 그러나 평가가계의 흑자율이 표준가계보다  $\pm 5\%$ point 밖에 있다면 이 가계는 소비지출의 예산배분을 위한 진단과 제언이 필요한 가계로서 규정한다.

두 번째 과정으로서 흑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 예산배분에 필요한 가계라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단과 제언을 하게 된다. 먼저 흑자율이 표준가계에

비해 5%point보다 낮은 경우 흑자율을 높이기 위해 평가가계가 해당하는 가정생활주기에서 비중요재로 규정된 비목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이때 평가가계의 비중요재 비목들의 예산비중이 표준가계에 비해  $\pm 5\%$ point 이내에 있어 예산규모가 적절하다면 다음으로 보통재를 중심으로 예산배분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반대로 평가가계의 흑자율이 표준가계에 비해 5%point 높아서 가계지출의 규모가 작은 가계라면 해당하는 가정생활주기에서 중요재라고 규정한 비목을 중심으로 예산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때 평가가계의 중요재 소비비중이 표준가계에 비해  $\pm 5\%$ point 이내라면 중요재의 예산배분이 적절한 상태이므로 그 다음 보통재의 예산비중의 증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출력하려면 '출력' 버튼을, 결과를 저장하려면 '저장후 종료' 버튼을, 결과를 삭제하려면 '삭제후 종료'를, 앞의 화면으로 되돌아가려면 '뒤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3.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효용성 평가

본 프로그램 사용자의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평가의 내용을 크게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유용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측정도구인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개별 인터뷰하였다.

#### 1) 프로그램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의 타당성 측면은 가계지출 비교평가를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 내용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는 다음 <표 7>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취지나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도에서는 '잘 이해가 된다'가 65%로서 이해도가 높았으며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가 25%로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인터뷰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프로그램에 사용된 용어가 좀 생소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그림 8>에 제시된 진단과 제언부분에서 '중요재, 보통재, 비중요재' 같은 용어를 좀더 쉽게 풀어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그림 3>에 제시된 가정생활주기의 구분은 '적절하다'가 60%, '적절하지 않다'가 30%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

자 가운데는 가정생활주기가 이에 제외되는 가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구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자녀연령에 따라 가정생활주기가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 <그림 4>에서 소비지출비목 내역의 구체적 설명이 제시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이해하고 금액을 책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등의 '적절하다'는 의견이 75%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지출비목의 구분이 현재의 소비생활과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아파트관리비의 경우는 대부분 주거비와 광열수도비의 복합적 항목으로써 한꺼번에 지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목구분이 없어 아파트관리비를 주거비와 광열수도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변화된 가계의 소비행태를 연구하여 소비비목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의 유용성은 본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소비자의 가계지출평가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소득 및 소비지출 비중도 평가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가 55%,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

<표 7> 프로그램 타당성 측면의 평가

질문항목	응답영역	N(%)
프로그램 취지 및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도	잘 이해된다	13(65)
	그저그렇다	2(10)
	잘 이해되지 않는다	5(25)
가정생활주기 구분에 대한 타당도	적절하다	12(60)
	그저그렇다	2(10)
	적절하지 못하다	6(30)
소비지출 내역 기입의 타당도	적절하다	15(75)
	그저그렇다	1(5)
	적절하지 못하다	4(20)
전	체	20(100)

<표 8> 프로그램 유용성 측면의 평가

질문항목	응답영역	N(%)
소득 및 소비지출 비중도 평가의 유용성	큰 도움이 되었다	11(55)
	그저그렇다	3(15)
	도움이 되지 않았다	6(30)
비교가계와의 소비 지출평가의 유용성	큰 도움이 되었다	17(85)
	그저그렇다	2(10)
	도움이 되지 않았다	1(5)
가계수지진단 및 분배 조절에 대한 유용성	큰 도움이 되었다	17(85)
	그저그렇다	1(5)
	도움이 되지 않았다	2(10)
전	체	20(100)

을 살펴보면 소비지출비목의 특성상 식료품비와 같이 매달 소비지출량의 변화가 크지 않는 비목이 있는 반면, 교육비나 광열수도비와 같이 지출비중의 변화가 큰 비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지출비중도의 평가시 모든 달의 평균치를 기입하는 방식보다는 분기별, 혹은 월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둘째, 비교가계와의 소비지출평가에 대해서는 85%의 가계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사용자 대부분의 가계에서 비교가계와의 평가를 매우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수지진단 및 예산분배 조절에서는 85%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 응답중에서는 <그림 7>의 가계수지의 진단에서 가계별로 흑자율을 산출하여 소득과 가정생활주기가 비슷한 가계와 비교하여 흑자율의 상태를 평가한 것은 가계의 경제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미래의 가계예산분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를 통한 소비비목에 대한 예산분배의 조절에서 소득과 가정생활주기만을 근거로 하여 중요재와 보통재, 비중요재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가구원수나 자녀수, 거주지역, 주부취업유무와 같은 가계특성을 좀더 세분화하여 비목조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기존의 가계부 프로그램이나 미국의 프로그램인 재무관리 프로그램에 비하여 컴퓨터의 사용과 조작에 익숙하지 못한 주부나 소비자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며 무엇보다도 월별 가계의 소비지출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단기적 차원에서 가계의 소비지출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가계의 소비지출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가계로서, 가계의 소비욕구와 필요를 구분 지어

주는 가정생활주기별 구분과 소비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을 통해 표준가계를 구성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을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적절한 준거의 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흑자율에 근거하여 각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가정생활주기별 가계가 필요로 하는 소비비목의 중요도에 따라 소비비목의 예산배분을 조절하는 진단과 제언을 제공함으로써 가계관리자나 소비자에게 가계재무관리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 및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2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소비자나 가계의 복지증진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나 가계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쉽고 효율적으로 소비생활이나 경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둘째, 가족구성원의 소비지출관리나 가계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소비자로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셋째, 이를 통해 소비자나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켜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학문의 발전방향에서의 효과를 보면,

넷째, 가계의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실증적인 교과과정의 개발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도 흥미도와 관여도를 높일 수 있고 다섯째, 중, 고교에서의 가정과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나 중요도를 강화시킴으로서 가정교과목의 위상을 높여주며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실습함으로써 가정과 교사에 대한 재교육, 특히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여섯째, 가정학이론의 실용화를 통해 응용학문으로서의 가정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가정학의 방향을 소비자나 가계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규범적인 학문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가정학의 독자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사용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점으로는 좀 더 쉬운

용어의 사용, 자녀연령에 따른 가정생활주기의 세분화, 소비비목구분의 재정비, 가계특성의 세분화, 분기별 혹은 월평 평가기능의 첨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좀더 효과적인 사용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1) 박명희 · 이승신 · 배미경, 가계 재무관리 Software 개발을 위한 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36(2), 1998, 132-144.
- 2) 박명희 · 이승신 · 박미혜, 가계재무관리 Software 개발을 위한 연구 (1): 가계부 내용분석과 가계 재무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1997, 85-98.
- 3) 이승신 외, 가계경제학, 학지사, 1996.
- 4) 이기춘, 가정경제학, 교문사, 1992.
- 5) 이기춘 외, 소비자재무설계론, 학현사, 1998.
- 6) 이기영 외, 생활설계론, 교문사, 1998.
- 7) 양세정,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8, 1991, 54-67.
- 8) 생활경제연구모임, 가족경제학, 도서출판 한터, 1993.
- 9) 생활경제연구모임, 소비경제학, 도서출판 한터, 1993.
- 10) 황은애, 도시주부의 생활양식에 따른 가계소비 지출구조와 패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11) 황은애 · 이승신, 도시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비지출패턴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8), 1999.
- 11)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8, 1999.
- 12) Duesenbery, J., Inci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13)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Money, M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1936.